

도시민, '농업' 앞으로도 국가경제에 중요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으로 체질개선·피해보상 순

□ 시민 대부분은 농업이 앞으로도 중요하며, 농산물 시장개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방에 따른 대책이나 피해보상 방식에는 농업인과 인식차이를 뚜렷이 보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도시민 88.4%가 '농업은 앞으로도 국가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농산물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시민도 60.7%에 달하였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이를 '집단 이기주의' (14.5%)라는 견해보다 74.5%가 '이유 있는 태도로 이해 한다'고 응답해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도시민은 농업의 체질개선을, 농업인은 농가 소득보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민은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51.3%)을, 농업인은 수입개방 피해에 대한 보상(49.7%)을 정책 우선순위로 꼽았다. 피해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도시민은 '간접보상' (53.2%)을, 농업인은 '직접보상' (49.8%)을 꼽아 농업정책 추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 도시민 10명중 7명은(71.3%)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되면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농촌 거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61.9%),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17.7%)라고 응답해 이를 감안한 적극적인 유인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대해 39.2%가 '만족 한다'고 응답하였고,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14.8%로 집계되었다.

한국작물보호協, 「정기이사회·총회」 열어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는 지난 2월 9

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34차 정기이사회·총회를 개최했다.

제조 및 원제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이사회·총회에서는 감사 및 업무보고에 이어 2006년도 결산 및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회원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올해 3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최운홍 전무이사를 만장일치로 재선임 하였다.

「2007하작물 농약품목등록시험 설계 심의회」 개최

약효·약해 491항목, 독성 478약종, 잔류성 507항목 심의

올 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등록시험을 위한 「2007하작물 농약품목등록시험 설계심의회」가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aT센터에서 분야별로 개최됐다.

심의위원 및 시험기관 시험담당자, 업계관계자 등 약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T센터에서 열린 첫날 약효·약해시험을 위한 설계심의회에서는 살균제 176항목, 살충제 192항목, 제초제 108항목, 생장조정제 15항목 등 총 491항목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처리시기 및 방법, 시험장소,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이튿날인 1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독성 및 잔류성에 대한 설계심의회가 있었다. 급성 경구 및 경피 95약종,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이



95약종, 피부감작성 95약종, 잉어 96약종, 미꾸리 45약종, 물벼룩 유영저해시험 45약종, 미꾸리 야외포장시험 7약종에 대한 독성시험 설계심의회에서는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통적인 방안이 논의되었고 작물잔류 398항목, 토양잔류 60항목, 수중잔류 49항목에 대한 잔류설계심의회에서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잔류시험의 중요성을 감안, 설계 및 시험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2007농약 등록 및 시험담당자 교육」 개최



2007농약품목등록 및 시험담당자 교육이 지난 2월 9일 농촌진흥청 대강당 및 고객지원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및 특정연구기관, 민간연구소 시험담당자 및 농약업계 등록신청 담당자 등 2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살균, 살충, 제초·생장조정, 작물잔류, 토양·수중잔류, 인축독성, 환경생태독성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등록신청서 기재요령 및 등록시험기준과 방법, 시험수행시 유의사항 및 시험성적서 작성시 기재사항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약제처리시 및 조사시기의 기상상황 기록, 시험수행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장면, 약해증상 및 피해정도 사진 첨부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다.

바이엘, 신임 사장에 '요그 레바인' 씨 취임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신임 사장에 '요그 레바인(Mr. Joerg Rehbein)' 씨가 임명됐다.

지난 1월 1일자로 취임한 신임 요그 레바인 사장은 1965년 독일 태생으로 웨링(러시아), 아그레보(중양아시아), 아벤티스社(프랑스)를 거쳐 2002년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독일 몬하임 본사), 터키, 아프리카, 중동, 독립국가연합 지역 사업기획 및 최적화 책임자와 2003년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우크라이나) 사장직을 역임한바 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만 3년 동안 한국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앤드류 옴(Mr. Andrew Orme) 사장은 역시 2007년 1월 1일부로 영국 바이

엘 크롭사이언스(주)의 신임 대표이사로 발령됐다.

신임 요그 레바인(Mr. Joerg Rehbein) 사장의 주요 약력을 보면 △1965년 독일 할레(Halle) 출생 △1993년 웨링社(러시아) 마케팅 책임자 △1996년 아그레보社(중양아시아) 사장 △2000년 아벤티스社(프랑스) 기업회계 책임자 △2002년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독일 몬하임 본사), 터키, 아프리카, 중동, 독립국가연합 지역 사업기획 및 최적화 책임자 △2003년 우크라이나 사장 △2007년 한국 사장



바이엘, 「2007영업역량 강화교육」 실시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대표이사 요그 레바인)가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과 영업능력 향상을 위한 「2007영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2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용인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 이번 교육에 대해 바이엘측은 “외부강사까지 초빙하여 개최한 올해 강

화 교육은 영업 및 마케팅 직원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삼공, 「2007영업본부 상반기 전략회의」 개최



한국삼공(주)(회장 한광호)는 지난 2월 7일부터 9일까지 도고 아이에프 콘도에서 「2007영업본부

상반기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신상품 및 친환경 자재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회의는 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농업인의 서비스강화에 대한 교육 및 심도 있는 토론도 이루어졌다.

경농, 신제품 「뉴리더 수화제」 출시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이 최근 과수 채소에 탁월한 예방과 치료효과가 있는 신제품 「뉴리더 수화제」를 출시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뉴리더 수화제」는 배 검은별무늬병과 수박 덩굴마름병, 오이 및 참외 흰가루병에 등록된 약제로서 침투이행성이 뛰어나 저약량에서도 방제효과가 높고 예방 및 치료효과 또한 우수하다. 특히 기존약제의 내성균에도 높은 살균력을 보이는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으며, 작물에 대한 안전성이 매우 높아 적용 가능한 작물의 범위 또한 넓다.

사용방법은 병 발생 초기에 물20 l 당 20g (1,000배)을 희석하여 3~4회 약액이 작물에 충분히 묻도록 살포하면 여러 가지 병해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제품상담전화 02-3488-5978).

바이엘, 이양전 처리제 「톱스타 유제」 출시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대표이사 요그 레비인)가 이양전 처리형 논잡초 전문 제초제인 「톱스타 유제」를 출시하였다.

이번에 출시된 「톱스타 유제」는 저항성 물달개비에 대한 효과가 우수하며 약효가 오래 지속되어 간척

지에서도 좋은 제초능력을 보이며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 살포 작업의 쾌적함도 유지할 수 있다.

기계이양벼(어린모)에 등록되어 있어 피, 가막사리, 물달개비 등의 제초효과가 뛰어난 「톱스타 유제」는 논 지면의 흙이 물위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수심을 유지하고 흙탕물 상태에서 살포한 다음 반드시 약제 살포 후 정지판 작업을 실시한다. 정지 작업을 균일하게 하고 약제 살포 후 최소한 3일이 지난 다음 이양한다. 이 때 벼 엽신이 물에 잠기면 약해 우려가 있으니 이양후에는 반드시 물 관리를 알게 해야 한다.

인사

- (주)경농 <승진> △ 마케팅기획팀 변상운 수석부장 △ 수원지점 승현명 수석부장 △ 제품기획팀 이창규 수석부장 △ 대전지점 김만호 부장 △ 원주지점 김길흥 부장 △ 마산지점 김규석 부장 △ 판매관리팀 최영환 차장 △ 중앙연구소 양경형 차장 △ 생산관리팀 김종우 상무보 △ 품질관리팀 이재원 수석부장 △ 기술팀 김만수 차장
- (주)동방아그로 <승진> △ 부공장장 한희수 부장 △ 호남지역본부장 김원배 이사보
- 성보화학(주) <승진> △ 영업·보급담당 박완순 이사 △ 제2공장 김영순 이사 △ 총무부 박성훈 차장
- 아리스타 라이프 사이언스 코리아(주) <승진> △ 기술개발본부 부문장 겸 본부장 박영기 전무이사 △ 영업본부부문장 겸 본부장 황태구 전무이사 △ 경영지원 본부장 김용목 이사
- (주)영일케미컬 <신임> △ 기획관리 상무이사 양승진 △ 영업관리 상무이사 이상준 △ 감사위 원장 박태호
- 동양제철화학(주) <승진> △ 사업 3부 김인원 전무이사